

감사말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Trần Thị Bích Phượng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교수님들과 친구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인에게 끝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큰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TÓM TẮT LUẬN VĂN

1. Lí do chọn đề tài nghiên cứu:

Hàn Quốc và Việt Nam có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về lịch sử và văn hóa. Hai quốc gia cùng tiếp xúc với nền văn hóa Trung Hoa thời kỳ Trung cổ trong thời gian dài, bước vào thế kỷ 19 cùng trải qua thời kỳ thuộc địa Nhật Bản và Pháp và bị chia đôi hai miền nam bắc. Sự tương đồng về lịch sử ấy cũng dẫn đến nhiều sự tương đồng về văn hóa, văn học, xã hội của hai quốc gia. Bước vào thời kỳ cận đại hóa, cuộc vận động 3.1 năm 1919 tại Hàn Quốc là sự kiện lịch sử có ảnh hưởng to lớn đến nền văn học đương đại, khẳng định tự do văn hóa, nâng cao ý thức xã hội của con người cũng như góp phần hình thành khuynh hướng văn học hiện thực chủ đạo trong lịch sử văn học cận đại Hàn Quốc.

Hyeon Jin Geon là một trong những tác giả theo chủ nghĩa hiện thực tiêu biểu của văn học Hàn Quốc. Đối tượng sáng tác của ông ngoài những người nông dân với cuộc sống nghèo khổ bị áp bức còn có những người trí thức nghèo bất lực sống trong xã hội thực dân thuộc địa,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đã phản ánh chân thực và sâu sắc bối cảnh xã hội đương thời và là đối tượng sáng tác làm nên tên tuổi của ông. Cho đến nay, có các nghiên cứu của các học giả trong và ngoài nước về tác giả và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nhưng nghiên cứu tập trung về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hiện nay, còn rất ít. Trên cơ sở này, chủ đề “ Nghiên cứu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Liên hệ với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Nam Cao)” được sinh viên chọn làm đề tài luận văn tốt nghiệp đại học Ngành ngôn ngữ và văn hóa Hàn Quốc.

2. Câu hỏi nghiên cứu chính của luận văn:

Câu hỏi: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hời kỳ những năm 1920 được khắc họa

như thế nào qua các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có điểm gì giống và khác với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tác giả Nam Cao ở Việt Nam.

3. Mục đích và đối tượng nghiên cứu:

3.1. Mục đích nghiên cứu

Nghiên cứu phân tích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rút ra những điểm tương đồng về bối cảnh xã hội, văn hóa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những năm 1920 thông qua việc so sánh với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Nam Cao.

3.2. Đối tượng nghiên cứu

Tác phẩm <Vợ nghèo>, <Xã hội xúi giục uống rượu>, <Người tha hóa> của tác giả Hyeon Jin Geon, tác phẩm <Đời thừa>, <Giăng sáng> của tác giả Nam Cao.

4. Phương pháp nghiên cứu:

Phương pháp phân tích, đánh giá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phương pháp so sánh, đối chiếu với tác phẩm của Nam Cao

5. Kết cấu của luận văn:

Ngoài phần mở đầu và phần kết luận, luận văn gồm 3 chương:

Chương 1: *Bối cảnh xã hội Hàn Quốc những năm 1920 và tác giả Hyeon Jin Geon.*

Chương 2: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Chương 3: *So sánh hình tượng người trí thức trong tác phẩm của Hyeon Jin Geon và Nam Cao.*

논문 요약

'현진건 단편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남까오와 지식인상과 비교하여)'의 주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 서론: 연구 목적, II. 본론: 문제점 분석 및 베트남 작가와의 비교, III. 결론 등의 3 부분으로 나뉜다.

서론은 연구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현진건은 한국 단편 소설의 선구자라고 하며 현진건의 문학 세계 중에 주요적으로 나타난 창작 대상은 농민들 외에 국가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난하면서 무력한 지식인들이다. 또는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도 서론에 제시된 것이다.

본론은 문제점을 도출하며 비교를 진행하며 3 부분으로 분류된다. 1 장에서 현진건이 지식인에 대한 작품들을 창작한 1920년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에서 지식인에 대한 현진건의 대표적인 작품 3편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인의 특징을 3 종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에서 분석한 현진건의 지식인상과 남까오의 지식인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인 <여분의 인생>, <밝은 달>에 등장한 지식인상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결론은 연구의 정리, 결과를 제안한다.

목차

제 I 부: 서론.....	7
1. 연구 목적.....	7
2. 선행 연구 검토.....	10
3. 연구 범위 및 방법.....	13
제 II 부: 본론.....	14
제 1 장: 1920 년대 한국 사회 및 현진건 작가.....	14
1.1. 1920 년대 한국 사회.....	14
1.1.1. 시대 배경.....	14

1.1.2.	당시 지식인 및 문학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17
1.2.	현진건 작가	21
1.2.1.	현진건의 인생	21
1.2.2.	현진건의 문학 세계	21
제 2 장:	현진건의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22
2.1.	무기력한 지식인	22
2.1.1.	생활인의 갈등	22
2.1.2.	작가지망생의 갈등	28
2.2.	좌절한 지식인	30
2.2.1.	아내와의 불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식인의 좌절	30
2.2.2.	사회개혁의지의 좌절	35
2.3.	타락한 지식인	39
2.3.1.	꿈이 깨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뇌	39
2.3.2.	타락에 깊이 빠진 지식인과 인생의 비극	42
제 3 장:	현진건의 지식인과 남까오의 지식인 비교	49
3.1.	남까오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49
3.1.1.	문필가의 비극	49
3.1.2.	애정의 비극	53

3.2. 현진건의 지식인과 남까오의 지식인의 비교.....	55
3.2.1. 공통점.....	55
3.2.2. 차이점.....	58
제 III 부: 결론.....	60
* 참고 문헌.....	63
<부록>.....	65

제 I 부: 서론

1. 연구 목적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 중국 문화와 접하여 장기간 직접적인 영향을 깊이 받았고 19 세기에 들어서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일본과 프랑스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 시기를 겪었고 남북 분단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사점을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에 대한 동질성이 많이 나타나 왔다. 중국의 영향 아래 공자 유교사상과 한자를 받아 들여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왔고 그 외에는 조상숭배, 윗사람에 대한 예절, 젓가락 문화, 결혼식, 장례식 등에도 양국 간의 공통점을 찾아 볼 수도 있다.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초까지는 양국에서 많은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터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1910 년에 들어서 봉건제도가 쇠망하였고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식민지 수탈 정책을 시행하였다. 1873 년부터 프랑스는 베트남을 침략하였고 식민지 정책으로 베트남의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곳곳에서 자국의 독립과 주권을 주장하고 되찾기 위한 제국주의 항전과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또는 한국은 일본을 통하여 베트남은 프랑스를 통하여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과 문명과 접하였으며 근대화 과정은 구시대의 봉건적인 사상과 생활방식과 맞부딪치더라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하여 양국의 근대화 과정은 조국주의 침략으로 수탈을 당하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학 근대화 과정에서 당대의 문학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제국의 점령에 저항하고자 하는 비폭력적인 1919 년 삼일운동이다. 삼일운동은 실패하였지만 일본제국이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하여 무단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게 하였으며 문화정책을 펴게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문학의 창작이 활발해지고 문예 동인지들이 생겨 나면서 한국 문학사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또는 민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일깨워진 당대 작가들은 이런 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고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 주로 내놓았다.¹ 삼일운동은 향후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상 주도적인 경향이 된 사실주의 경향을 형성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장편소설, 단편소설, 수필 등 여러 종류에 창작하는 훌륭한 사실주의 작가들이 많이 생겼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들로 염상섭,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작가는 빙허 현진건을 꼽아야 할 것이다. 현진건은 한국 근대 문학에 있어서 단편 소설을 확립시키고, 사실주의를 도입하며 사실주의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1920년대부터 1945년 해방까지 창작활동을 하는 현진건의 작품들은 일제 지배하의 민족에 수난적 운명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 묘사를 지향하는 리얼리즘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현진건의 문학 세계 중에 주요적으로 나타난 창작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의 직접적인 수탈대상인 농민들과 국가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난하면서 무력한 지식인들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 지식인들은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와 공헌을 하면서 시대 배경의 많은 영향을 받고 반영하는 인물로 현진건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 연구하고 평가할 만한 문학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은 현진건의 지식인상에 중점으로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등 지식인에 대한 현진건의 대표적인 작품 3편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식민지하 지식인 이미지 또는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에

¹ 김동인, 황순원, 『한국 단편 소설 1920-1960』, 도서 출판 혜문서관, 2006.

대한 이해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인 남 까오 Nam Cao 와 비교함으로써 두 작가의 작품들에 나타난 식민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현진건은 한국 문학상 1920-1940 년 기간 대표적인 사실주의작가 중 하나로 유명한 작가이고 그의 작품들은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의 생활을 주제로 다루어서 시대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진건과 그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 실적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진건 작품들에 나타난 지식인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아직 미흡한 상태로 보인다. 학위 논문을 보면 현진건 작품의 지식인에 대한 연구는 두 편 밖에 없는 것이다.²

첫번째 논문은 현진건과 루쉰의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의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단편 소설 비교 연구- 현진건과 로쉰 소설의 지식인상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에서 현진건과 로쉰의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작품 속에 나타난 지식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현진건과 루쉰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인물의 의의를 찾아냈다. 두번째 논문은 응웬 티 투이 짱(Nguyễn Thị Thùy Trang)의 “현진건 단편 소설의 지식인상 연구- 남까오 지식인상과 비교하여”이다. 이 논문에서 무력한 인간상,

² 현재까지(2017) 현진건 작품의 지식인에 대한 논문은 아래 두 편 뿐이다

포문전침,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단편소설 비교연구- 현진건과 루쉰 소설의 지식인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응웬티튀짱 Nguyễn Thị Thùy Trang, 『현진건 단편 소설의 지식인상 연구- 남까오 Nam Cao 작품의 지식인상과 비교하여』,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졸업논문, 2015

우울과 좌절 인간상, 타락한 인간상 등 세 가지 항목을 통하여 지식인 인상을 분석해 보았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 문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베트남에서 현진건과 현진건의 작품에 관련한 연구가 많지만 단지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현진건과 베트남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연구되었다. 기존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보면 현진건과 남까오 또는 다른 베트남 사실주의 작가들에 관한 비교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당람장의 ‘베트남과 한국의 사실주의 문학 비교 연구- 응웬꽁호안과 현진건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³ 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1920년대부터 1945년 해방까지 근대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인 사실주의 문학을 소재로 하여 양국에서의 성립과 발전을 비교 연구하였다. 양국의 사실주의 문학을 비교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 응웬꽁호안 (Nguyễn Công Hoan)과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 현진건의 작품을 비교해 보았다.

베트남의 르엉응타인짱 (Luong Nguyễn Thanh Trang)는 “Nam Cao(남까오)와 현진건 사실주의 단편소설 비교연구”⁴ 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베트남 근대작가이며,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남까오를 소개하고, 한국 근대작가인 현진건과 비교하여 두 작가의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근대문학, 근대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³ 당람장, 『베트남과 한국의 사실주의 문학 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 전공, 2009

⁴ 르엉 응웬 타인 짱 (Luong Nguyen Thanh Trang), 『남까오(Nam Cao)와 현진건 사실주의 단편소설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7

또한 한국에서 온 강하나는 “Những điểm gặp gỡ giữ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Hàn Quốc Huyn Jin Geon và b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Việt Nam: Nguyễn Công Hoan, Nguyễn Hồng, Nam Cao”⁵ (한국 사실주의 작가 현진건과 베트남 사실주의 작가 3 명: 응웬공호안 (Nguyễn Công Hoan), 남까오 (Nam Cao), 응웬홍(Nguyễn Hồng)의 만남)이라는 논문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사실주의 작가에 관심을 가져 20세기 초 한국의 현진건과 베트남의 사실주의 작가 3인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통하여 작가의 사상과 작품의 주제, 인물, 예술 등의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석하는 과정에 거쳤으며 더 나아가서는 20세기 초에 한국과 베트남의 사실문학 경향의 유사한 점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현진건의 단편소설 몇 가지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베트남독자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 중 한 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문의 성과이자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60페이지의 분량 내에 한국 작가 한 명을 베트남 작가 3명과 비교하기 때문에 각 베트남 작가와 그의 작품의 특징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미진하고 아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요적으로 현진건의 문학관념, 현진건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실성 등 표괄적인 주제로 삼는 작품이며 현진건 문학작품에서 묘사되었던 농민과 지식인 등 현진건의 구체적인 인물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식민시대에 살고 있었던 현진건의 지식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베트남 사실주의 작가인 남까오와 비교함으로써 일본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한국과 베트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⁵ 강하나, “Những điểm gặp gỡ giữ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Hàn Quốc Huyn Jin Geon và b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Việt Nam: Nguyễn Công Hoan, Nguyễn Hồng, Nam Cao”, 베트남 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현진건은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현진건의 단편소설 중에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총 8 편인데 본고는 지식인을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3 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현진건의 작품들에 나타난 지식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실주의 작가인 남까오의 작품들에 나타난 지식인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지식인에 대한 남까오의 많은 작품 중에서 지식인을 주제로 삼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여분의 인생 Đòi thừa>, <밝은 달 Trăng sáng > 2 편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현진건과 남까오는 약간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식민지 사회에 살았던 작가였지만 당시 지식인에 관심을 가져 자기의 문학 작품 속에 반영한 바에 있어 두 작가가 묘사한 지식인상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찾아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1 장에서 현진건이 지식인에 대한 작품들을 창작한 1920 년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지식인이 어떻게 묘사되었고 제시되었는지 알아 보기도 한다. 그 다음 현진건 작가의 생애 및 문학 세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여 이를 통해 현진건의 생애 및 문학의식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장에서는 현진건의 지식인 소설 3 편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인의 특징에 따라 3 가지 분류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무기력한 지식인, 좌절한 지식인은 <빈처>, <술 권하는 사회>에서 다루어졌으며 타락한 성격을 지닌 지식인은 <타락자>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다.

3 장에서 위에 분석한 현진건의 지식인상과 남까오의 지식인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인 <여분의 인생>, <밝은 달>에 등장한 지식인상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제 II 부: 본론

제 1 장: 1920 년대 한국 사회 및 현진건 작가

1.1. 1920 년대 한국 사회

1.1.1. 시대 배경

현진건은 살면서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1920 년대는 식민지 시대였다. 한일합방⁶으로부터 그 이후의 15 년은 한국의 독립쟁취기간이었으며 민족의 독립 의욕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3.1 운동이었다. 1919 년 3 월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농촌과 도시에서 만세를 부르는 대중적 시위 운동이 폭발했다.⁷ 일본은 무단통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선식민지통치의 기초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국 기대했던 3.1 운동은 실패하였지만 다른 한편 문화자유, 인간자유, 자조정신을 강하게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920 년대는 일본 식민지 치하 아래 근대화를 맞으면서 한국민족의 정치,

⁶ 한일합방: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1920 년 8 월 22 일에 조인되어 8 월 29 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⁷ 김석규, 『3.1 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근대사회와 사상, 중원문화, 1984, 145 쪽

사회, 경제, 문화, 가치관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 주의 3.1 운동 이후 조선의 민족운동은 문화, 사회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언론, 문화, 체육, 교육, 종교 진흥과 여성, 청년의 사회인권운동, 산업개발과 자립경제운동 등의 지표를 보였다.⁸ 그리고 1917 년 러시아 혁명 후 전세계 퍼지기 시작한 계급주의 사상이 등장했음에 따라 청년 단체, 정치 단체, 노동 단체 등이 대거 결성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시기에 들어가면서 사상적,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나날이 암울해진 상황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침식은 토지, 광산, 철도,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이루어졌고 조선의 자생적 발전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착취 정책을 행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민중들은 일제 식민 치하의 착취와 수탈대상으로 가난해지고 절대적 빈궁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1920 년대는 '빈곤화 시대'라고 할 정도였다.

3.1 운동의 실패로 인하여 한민족은 좌절을 느꼈으나 일제가 '문화 정치'로 전환함으로써 1920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가 창간되었고, <창조>, <백조>, <개벽> 등 동인지와 종합지가 간행되었다. 개벽사와 한성도서 등의 출판사가 등장해 근대적 유통구조의 기반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문 문학인의 등장으로 문학적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 년대 전반기에는 인간의 생애를 자연 현상으로 파악하는 자연주의와,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표착하여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 주로 창작되었다. 1920 후반기에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카프가 결상되어

⁸ 포문전첨,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단편 소설 비교 연구- 현진건과 루쉰 소설의 지식인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1 쪽

계급주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계급주의 소설은 궁핍한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결말에는 궁핍한 현실을 부정하여 살인, 방화 등으로 귀결되는 식이었다.⁹ '빈곤화 시대'의 상황에서 당대 작가들은 시대에 대한 의식으로 민족과 민중의 고통과 암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시민지 치하 민중의 궁핍함과 정치적인 압박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리얼리즘 시각으로 창작하였다. 이에 따라 1920 년대는 한국 현대소설의 진정한 출발이고 현대소설의 특징의 하나는 리얼리즘이다. 한국 소설에서 바로 이 1920 년대는 리얼리즘의 태도와 기법을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⁰

한국에서 사실주의 문학이 처음으로 일본을 통하여 도입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 수탈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극도의 궁핍상황을 일으켰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당대 작가들은 고민하였고 고통을 겪었으며 자기의 문학작품에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었다. 이 것은 한국 사실주의 문학을 성립시키는 주요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1920 년대 서구 사실주의 문학이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소설 경향에서 벗어나 서구의 근대적 소설 경향을 받아들이고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처럼 1920 년대 사실주의 문학은 당대 여러 내외 사회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20 년대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는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전영택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⁹ 김동인, 황순원, 『한국 단편 소설 1920-1960』, 도서출판 혜문서관, 2006.

¹⁰ 조동일, 『한국문학강의』, 도서출판 길벗, 1994, 359 쪽

단편소설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던 작가들이다.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1920년대 일제의 침략으로 궁극적인 궁핍상에 빠진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지식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뇌와 고통,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 처럼 당대 작가들은 사회 속에서 자아의 신분을 인식할 수도 있었고 암울한 사회적 현실까지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1920년대의 한국 작가들은 리얼리즘의 정신과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소설을 현대화할 수 있었다.

1.1.2. 당시 지식인 및 문학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통하여 조선의 교육을 통제해 왔다. 자료를 보면 인구대비 일본인 학교가 조선인 학교보다 더 많으며 더욱이 중등학교로 가면 아예 한국 학생수는 거의 없고 일본학생은 대부분 차지하였다. 게다가 일제는 중고교육도 그랬지만 고등교육은 기회 자체를 조선인들에게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교육기회와 교육시설에 대한 차이가 대단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일제는 원래의 강압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 전환시켰는데 이때 발표된 것이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이다. 이를 통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등보통학교와 고등보통여자학교의 수업연한도 각각 5년과 4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학교육을 인정하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대학교육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 설립된 대학이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다.¹¹

그런데 사실 경성제국대학이 조선인들의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제의 잔머리였다. 다른 말로 조선인들을 식민지 지배 체제 속으로 포섭하기 위한 문화정치의 일환이다.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다고 하나 조선인은 극소수만 다닐 수 있었을 뿐이다. 1919 년대부터 1937 년까지인 문화통치의 시기를 보는데 일제는 이 시기에 겉으로 유화정책을 펴는 것 같았지만 본질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하면서 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문화통치정책으로 확대된 교육기회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고등 실업문제도 뚜렷하였다. 실업문제는 1920 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여 1929 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심하게 지속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데다가 식민지적 조건에 따라 고등 인력수용기관이 부족하고 관청, 은행 및 회사에서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은 당시 실업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1920 년대 일제는 탄압정책으로 조선인에게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관심을 배제하는 것을 강요시켰다. 사실에 따른 역사 기록이 힘들게 되어 역사가 왜곡되고 문화적 가치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지식인들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일제는 간독한 정책으로 직업을 줄이고 실업문제를 일으켜 지식인을 무력화시켰다. 지식인들은 직업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취업의 기회를 못 찾고 실업자가 되어 버렸다. 지식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¹¹ 『일제 강점기의 교육』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C%A0%9C_%EA%B0%95%EC%A0%90%EA%B8%B0_%EC%9D%98_%EA%B5%90%EC%9C%A1, 2017 년 10 월 10 일에 편집되었다

살아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지식과 능력을 사용할 곳이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식민지는 가족을 돌보기는 커녕 호구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거리를 헤매는 처지가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또는 지식인 계층은 대학교육을 받은 계층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국 실패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자책하였다. 잔인한 현실과 막막한 앞날을 잘 인식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지식인들은 절망에 더 깊게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궁을 겪었으나 정신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다.¹² 현실과 이상의 모순과 대립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술과 기생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20년대 서구 문학이 한국에서 소개되면서 한국 문학이 전통적 문학에서 근대적 문학으로 전환하였다. 작가들은 이상적 문학을 추구하기보다 당대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사실주의 경향으로 된 사실주의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부분 문학작품에서 이루어지는 소재는 주요적으로 가난한 민족의 삶과 일제 치하의 현실의 어둠과 고통, 식민 정책의 모순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 단편에서 하층민과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문학 작가들은 지식인 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아 여러 문학 작품에 당시 사회의 지식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작가들은 자신이 지식인으로 누구보다 지식인이 처한 처지를 잘 인식하여 보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도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예민하는 지식인을 통하여 사실주의 작가들은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¹² 정승미, 『1930년대 지식인 소설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 쪽

1920년대 한국문학에 당대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작품들은 식민 치하의 혼란스러운 경제적 . 정치적인 현실을 살고 있는 지식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 현진건의 소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최서해의 <전아사>, 조명희의 <땅속으로> 등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작품은 많지만 개괄적으로 보면그 작품들에 등장한 지식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극한상황에 처해 생존책을 모색하는 가난한 지식인이다. 동경 유학을 마친 지식인이 가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가난과 빈민에 시달리는 모습, 생활의 위협과 작가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은 당대 작품들에서 여실하게 그려낸 것이다. 1920년대 한국 사회를 ‘거대한 걸식단’, ‘아사자와 걸식자가 길에 널린 사회’ 등으로 농축해서 표현한 것들이 눈에 띈다.¹³

다음으로 근대적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의 힘으로 문인으로서 명작을 창작하고 싶었던 지식인 또는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다시 되찾으려고 사회 개혁을 시도하였던 지식인은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뜻을 펼치지 못했고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지만 오직 문학 창작에 집중하고 가정의 경제 부담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식인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 현실의 압박 아래 체념하여 되는 대로 살아간다. 술과 기생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타락한 지식인이다. 술과 기생에 빠지면 빠질수록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아프고 비참한 처지에 시달려야 하였다.

¹³조동일, 『한국문학강의』, 도서출판 길벗, 1994, 370 쪽

1.2. 현진건 작가

1.2.1. 현진건의 인생

현진건은 호가 빙허, 1900년에 경북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1912년 일본 동경 성성중학교 입학하러 일본으로 건너갔다. 1918년 중국 상해 호강대학 독일어 전문부에 입학했으나,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1919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

1920년 <개벽>에 단편 <희생화>를 발표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하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1921년에는 그의 자전적 작품인 <빈처>에 이어 단편 <술 권하는 사회>를 발표하면서 문단에서 각광받는 작가로 자리를 잡았다. 1922년에 ‘백조’ 동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후 많은 작품을 내놓았다.

동아일보에 입사한 후 기자생활에만 전념하다가 1936년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재직시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간 복역하였다. 그 후 몇 편의 장편을 발표하고 1943년에 신병으로 서울에서 사망하였다.¹⁴

1.2.2. 현진건의 문학 세계

형과 형수 내외가 일제에 의해 죽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데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 등을 통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현진건의 소설들은 일제의 지배 하에 놓인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단편 <빈처> (1921), <술 권하는 사회> (1921), <운수 좋은 날> (1924), <B 사감과 러브레터> (1925) 등과 장편 <적도> (1939), <무영탑> (1939) 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당시 조선인의 수난상과 하층민의 빈곤 상태를 폭로하고 고발하였으며 일제에 대한 저항의 태도와 민족의식을 표현하였다.

<운수 좋은 날> 등은 하층민들의 삶을 사실대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으며

¹⁴김동인, 황순원, 『한국 단편 소설 1920-1960』, 도서 출판 혜문서관, 2006, 109 쪽

<B 사감과 러브레터>는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이중적 심리 상태를 사실감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등은 식민지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자화상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진건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은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타락한 길에 빠지게 되었던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장에서 무기력한 지식인, 좌절한 지식인, 타락한 지식인 등의 면에서 현진건 문학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진건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소설 구조적인 면에서 두드러지는 반어성이다. 그의 반어성은 비극적 풍자와 의극적 풍자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나 인간성의 모순점들을 소설로 형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평가된다.¹⁵ 현진건은 사실주의 작가로서 장황하고 풍부한 언어와 치밀하고 섬세한 묘사와 더불어 긴밀한 줄거리를 소설에 보여 주었다.

다른 자연주의 작가들이 현실적인 시대상의 어둠을 폭로하기 위하여 분석적인 태도를 취한 데 반하여 현진건은 그런 시대상에 대한 냉정한 관조의 관점을 취하였다.¹⁶

제 2 장: 현진건의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2.1. 무기력한 지식인

2.1.1. 생활인의 갈등

“빈처”에서 지식인 주인공 K는 일본과 중국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섭렵했고 유학갔다가 집안의 몰락으로 그만두어 귀국한 지식인이다. 문인으로서의 완강한 자부심과 근대적 자아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적 출세와 물질적 부를

¹⁵김동인, 황순원, 『한국 단편 소설 1920-1960』, 도서 출판 혜문서관, 2006.

¹⁶계용목, 『한국 대표 단편문 학선』, 번양사, 1997, 657 쪽.

거부하는 인물이다. 한편으로 구식여자와 가정을 꾸려 가장으로서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의무를 불구하고 맨날 ‘보수없는 독서와 가치가 없는 창작’에 힘을 쏟고 집안의 살림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다. 아내가 가구나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겨 얻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남편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데 애를 쓰고 남편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는 든든한 아내가 된다.

"급작스럽게 살 도리를 하라면 어찌할 수가 있소. 차차 될 때가 있겠지!"

"아이구, 차차란 말씀 그만두구려, 어느 천년에....."

아내의 얼굴에 붉은빛이 짙어지며 전에 없던 흥분한 어조로 이런 말까지 하였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괴었더라.

나는 잠시 멍멍하게 있었다. 성낸 불길이 치받쳐 올라온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막별이꾼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누가 내게 시집을 오랬어! 저 따위가 예술가의 처가 다 뭐야!"

사나운 어조로 물풍스럽게 소리를 꺾 질렀다.

"에그.....!"

살짝 얼굴빛이 변해지며 어이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방울방울 눈물이 장판 위에 떨어진다.¹⁷

어느 날 한성 은행에 다니는 T가 찾아와 자기 처를 위해 샷노라고 양산을 꺼내 보인다. T는 K 부부에게 반가운 손님인데 다른 한편으로 그의 가난을 드러내고 그와 그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든다. T는 한성 은행에서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월급이 올라가고 주식으로 부를 획득해 가고 있다. 양산을 보면서 아내는 몹시

¹⁷ <빈처> - 계용목, 『한국대표 단편문학선』, 변양사, 1992, 609-610 쪽

부러워했고 우리도 좀 살 도리를 하자고 말한다. 남처럼 살고 싶은 희망과 스스로 불쌍히 여김에 남편에게 원망하였다. 맨날 가정을 집안의 살림을 유지하는 데 고생하고 스트레스가 점점 커진데다가 남편은 출세할 기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복잡해진다. 궁핍한 생활을 시달리는 아내는 남편의 예술과 미래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물질적인 욕구에 흔들린다. 아내는 그동안 물질적인 욕망을 애써 억누르며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여성에 가깝다. 남편이 집안의 살림에 대한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숨겨 왔던 아내의 꿈과 소원은 시각적으로 폭발한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쓸쓸하고 불쌍한 것을 불구하고 오히려 왜 막벌이꾼한테 시집 안 갔냐고 야단을 치고 말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드는 그런 남성중심사회의 사상을 지닌 남자로서 아내를 마음대로 대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화하고 자신을 집안의 권력자로 여긴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남편의 노여움을 진정할 수 있었다. 아내는 현모양처인 구여성의 긍정적인 모습과 어느것보다 가장 큰 경제적인 정신적인 원조 때문이다. 남편은 소리를 지른 다음 날에도 아침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팔 옷을 찾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헌신적인 태도를 표하는 아내의 이런 말이 떠올라 남편의 마음이 어느정도 진정된 것 같다.

"왜 마음을 조급하게 잡수셔요! 저는 꼭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 날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장래에 잘 될 근본이야요."¹⁸

¹⁸ <빈처> - 계용목, 『한국대표 단편문학선』, 변양사, 1992, 613 쪽

안내의 이런 태도는 남편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 남편에게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생을 잠깐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K 는 감동을 받고 행복해지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야'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는 점점 강한 가면을 벗고 약한 진상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가소로운 변명까지 하였다.

"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하고 모욕하여도 상관없이 마누라까지 나를 아니 믿어 주면 어찌한단 말이지요."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아아."

길이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홀연,

"여보!"

울음 소리를 떨면서 무너지는 듯이 내 얼굴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끼어 운다. 그의 두 눈으로부터 샘솟듯 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¹⁹

그래서 K 는 아내와의 갈등을 그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K 의 약한 모습이 점점 잘 보일 수 있다. K 는 아내의 불쌍함과 서운함, 가정을 위한

¹⁹ <빈처> - 계용목, 『한국대표 단편문학선』, 번양사, 1992, 615-616 쪽

희생을 점점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자신의 예술과 미래를 일편단심으로 믿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마저 안 믿어 주고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으면서 절망에 가까이 빠진 것 같아 눈물로 마음 속의 서운함을 표하고 말았다.

여기서 K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위로를 받는 유아적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의 목표에 몰두하고 있어 주변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K는 내심으로 서로 완전히 대립적인 감정의 이면이 존재하고 있다. 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반면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K는 가련한 지식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등장하는 인물 중에 K와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인물들이 T밖에 처형의 남편이다. 처형의 남편은 소설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기미를 통해 착실히 돈을 벌어들인 인물이다. 처형은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얼굴에 부유한 태도를 내는데 그의 자매인 K의 아내는 가난에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 '얼굴빛이 어찌면 저렇게 틀리는지! 하나는 이글이글 만발한 꽃 같고 하나는 시들시들 마른 낙엽 같다.' 두 얼굴을 보고 비교하면서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처형의 남편에 대한 감정은 자신을 향한 열등감이 있으면서 아내에게 미안함과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을 가져온다.

K는 가족 사람들이 하던 말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린다.

"T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나 K(내 이름)는 아무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언문(諺文) 섞어서 무어라고 꼬적거려 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에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시러베아들놈!"

안 대청 가까이 들어오니 모두 내게 분분히 인사를 한다. 그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어찌 비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후끈거리었다.²⁰

위의 인용문은 K 에 대한 본가 친척의 비난이고 아래의 인용문은 처가에서 주변 사람들의 인사를 듣고 느끼는 감정이다. 그의 경제적 능력을 향하여 본가에서 친척들의 심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가 친척들 앞에 수줍어하는 상태에 빠지고 처가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느 때라도 제 은공을 갚아 줄 날이 있겠지!'

나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며 아내를 보았다.

"나도 어서 출세를 하여 비단신 한 켤레쯤은 사주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내가 이런 말을 듣기는 참 처음이다.

"네에?"

아내는 제 귀를 못 미더워하는 듯이 의아(疑訝)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되어 그렇게 될 것이야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러문요, 그렇고말고요."²¹

소설의 결말 부분에 K 는 소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가

²⁰ <빈처> - 계용목, 『한국대표 단편문학선』, 변양사, 1992, 606,618 쪽

²¹ <빈처> - 계용목, 『한국대표 단편문학선』, 변양사, 1992, 625 쪽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내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하다. 처음에 창작에만 몰두하느라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고 아내가 집안의 모든 살림으로 고생하는 것을 무시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앞에 아내에 대한 '동정심'과 '불쾌한 감정'이 공존하며 끊임없이 길항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의 섭섭한 마음과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을 다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아내를 안쓰럽게 느꼈다. 열심히 일하고 출세하여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경제적인 든든한 기초가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은 아내가 큰 힘을 받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2.1.2. 작가지망생의 갈등

“빈처”의 주인공 K 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에 몰두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작가지망생이다. 당시 문인으로서의 활동이란 개화기 선구자로서의 사회적 참여이며 , 이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²² 문학은 당시 사회와 인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남편의 문학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현실과 문인들의 활동상황, 그리고 이 작품이 현진건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평가를 감안할 때 남편은 역시 문학을 통한 사회참여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²³

그런데 K 는 문학단에 자신의 명성을 아직 확립하지 않는 채 조혼제도에 의해 결혼했으며 남편은 그때 16 세이고 아내는 18 세에 부부가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은 가장이라는 구실을 하여야 하고 가족 안의 경제적인 가능성을 유지하는

²² 김우중, “ “빈처”의 분석적 연구, (현진건 연구),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11 쪽

²³ 박혜리, “현진건 단편 소설의 남성인물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8, 47 쪽

책임을 져야 하였다. 또한 친척들로부터 경멸을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하였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 쓸데없는 독서와 창작에 몰두하고 정신적인 만족밖에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것 같다. 장가에서 술에 취한 K는 장모가 인력거를 불러 보내려고 할 때 '그 인력거 샅을 나를 주었으면 책 한 권을 사보련만 하는 생각' 뿐이었다. 아직 작품을 발표하지 못했고 문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온마음으로 독서와 공부, 창작에 전념한다. 그러면서 K는 아내가 집안의 혼수와 옷을 팔아서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약간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가만히 있는 무력한 남편뿐이다. K의 머리 속에 생활인이 되어야 하고 가족 안의 경제적인 일을 짊어져야 하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참된 문인의 생활, 예술가의 삶을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만 확고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아내와 남편은 추구하는 '성공'의 의미가 서로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들 부부는 현실적 궁핍을 '성공'에 대한 기대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에게 성공은 남편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것이다. 즉, 물질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에게 '성공'의 의미는 좀 복잡하다. 아내의 생각과 같이 물질적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만족을 주는 것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에게 문학은 보수 없는 독서와 가치 없는 창작이면서 동시에 저작가로 몸을 세워보는 수단인 것이다. 근대 비판적이면서도 근대 지향적인 모순된 가치인 것이다. 여기서 '참된 예술'에 대한 그 어떠한 열정적 신념도 매개되어 있지 않다. 근대적 속약한 논리에 저항하는 문학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출세를 하여 아내에게 비단신 한 켤레쯤 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보이는 문학을 지향하여야 한다.²⁴ 이러한 간극은 식민지 현실에서, 동시대의 현실에서도 쉽게 매워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K 는 개인적 출세와 물질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일반적 가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빈궁과 정신적 고뇌를 당하고 있는 지식인이다. 이러한 K 의 정신적 가치 지향은 은행원 'T'의 물질적 가치 지향과 대비된다. 가치관은 역시 각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 태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K 는 근대교육을 받은 다른 당대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사회 개혁의지가 확고되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 욕구는 물질적인 욕구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가난한 생활의 상황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갈등은 부부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의 갈등은 결국 가정의 행복과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부부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따뜻한 애정의 회복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애정만으로 그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갈등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생계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

2.2. 좌절된 지식인

2.2.1. 아내와의 불화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식인의 좌절

<술 권하는 사회>의 내용에 경제적인 문제로 무기력한 지식인상을 또 한번

²⁴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해설』, 지만지, 2009

제시하였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 남편은 중학을 마치고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동경에 가 대학까지 마치고 몇 년 뒤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결혼한 지 7-8 년 되었지만 같이 있어 본 날은 1 년도 못 되는 아내의 모습이 가엾게 부각된다. 아내는 남편이 일본 동경에 유학간 긴 세월을 기다리고 남편이 그리워도 '남편이 돌아온다면...' 생각으로 참아 냈다. 남편이 돌아 오면 무엇이든 다 될텐데 비단옷이나 금반지가 무슨 문제냐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자위하였다. 남편은 근대교육을 얻은 지식의 힘으로 사회 개혁에 대한 이상을 품었으나 아내는 남편이 유학했을 때 얻은 지식으로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 돌아온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기대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날마다 한숨만 쉬고 몸은 자꾸 쇠약해진다. 항상 얼굴에 근심이 가득 했고,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이 보내다가 밤이면 나가 술을 마시고 다녔다. 당연히 돈을 벌어 오기는커녕 집안의 돈을 쓰기만 했으며 걸핏하면 화만 내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었다.

또 두어 달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 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가지를 붙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인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보았다. 쥐이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석덜석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 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려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²⁵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책상머리에서 울기도 하고 늘
우울하게 지냈다. 이러던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가 다니게 되면서 집에 돌아올 때 늘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 아내가 꿈어 왔던 실현을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의 공부와
포부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는 남편이 매일 술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불화가 깊어지고 부부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아내는 남편의
옷을 벗기려고 노력했는데 잘 벗겨지지 않자 짜증을 내며 남편에게 술을 권한
사람들을 탓한다.

“원 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²⁵ “술 권한 사회” - 김동인, 황순원, 『한국단편소설 1920-1960』, 혜문서관, 2009, 111-112 쪽

라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흥 흥.”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곱씹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긋 웃고는 또 웃을 잡으며,

“자아, 웃이나 먼저 벗으세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아르켜 드리지요.”²⁶

남편에게 왜 그렇게 술을 마셨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고 ‘쓸쓸한 웃음’만 웃었다. 남편의 말과 웃음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아내는 ‘방긋’ 웃기만 하였다.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고 현 조선사회라고 말한다. 남편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런 사회에서 자신이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술 아니 먹는다고 흥장이 막혀요?’라고 할 뿐이었다.

“틀렸소, 잘못 알았소.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 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取)할 뿐이요.”

²⁶ “술 권하는 사회” – 김동인, 황순원, 『한국단편소설 1920-1960』, 혜문서관, 2009, 116 쪽

...(중략)...

“흥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르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환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더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여니 한다.²⁷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인 아내는 '사회'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릿 집'으로 연상해 내는 무지한 여인이다.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아내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아내의 무지함과 눈치없음으로 인하여 결국 부부의 의사소통이 실패하게 된다. 아내는 남편의 질문을 답할 수록 아내의 무지가 잘 드러나고 아내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아내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알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사회'의 개념조차 모르는 우매한 아내가 남편의 내면적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스스로도 괴롭고 심한 단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지적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기는 커녕 원망만 생기고 말았던 남편은 “아아, 답답해!”를 연발하며 소매를 뿌리치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간다. 남편은 봉건적인 사상이 잘 들어나는 구여성인 아내에게 싫증이 나고 한심하였다. 남편에게 공감을

²⁷ “술 권하는 사회” - 김동인, 황순원, 『한국단편소설 1920-1960』, 혜문서관, 2009, 117 쪽

주기는 커녕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구여성 아내는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마음 속에 억누르는 남편의 고통과 좌절감을 더 확대시킨다. 사회적 이상이 깨진데다가 가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은 극적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은 밤중에 집을 떠난 이유는 술을 다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적 현실과 아내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그 못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하는 아내의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나가는 이유를 앞축적으로 표현해 내며 아내의 절망과 지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무엇이 그 모순과 부조리를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하여 좌절에 빠지고 말았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고통을 분담하려고 가난도 참고 견디지만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편을 답답하게 만들어 버렸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아내의 무지가 남편에게 또 차례를 권하는지도 모른다.

<술 권하는 사회> 에서 아내와 남편의 갈등은 사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봉건적 사상과 질서 또는 지적 수준의 차이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갈등을 일으키고 말았다. 결말에 남편은 아내가 없는 바깥으로 떠나 버리는 것은 봉건적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세계를 찾아가려는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다.

2.2.2. 사회개혁의지의 좌절

<술 권하는 사회> 작품은 1920년대 사회적 현실과 당시 살고 있는 지식인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일제 탄압 밑에서 애국자인 지식인들이 어쩔 수 없는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환하며 그 책임은 ‘술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1920년대는 일제의 영향력이 확대된 가운데 친일과 항일 단체들이 뒤섞여 개인과 사회가 모두 암울한 시대를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 지식인은 알은 지식의 힘으로 혼란스러운 식민지적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좌절에 당하였다.

<술 권하는 사회>의 지식인인 남편은 유학을 떠났고 몇 년 뒤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근대적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의 힘으로 일제 식민 치하의 조국을 되찾으려고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포부를 품어 왔다. 그 외에 진보적인 지식으로 봉건제도로 인하여 낙후된 생활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국 사회적인 상황은 그 꿈과 포부를 실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의 행동이 자기의 기대하던 바와 어긋나는 듯하였고 이상한 표현이라고 본다. 남편은 하루종일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니고 집에 있으면 정신 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때때로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으며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찌지 않았고 몸은 나날이 처진다. 게다가 갑자기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으며 걸핏하면 성을 내고 화를 낸다. 또 처음처럼 출입이 다시 잦아졌으며 늘 술에 취한 채 돌아온다.

아내는 보는 바에 따르면 남편의 행동은 사람이 심리적인 정상의 상태에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남편은 무엇에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주 답답해 하고 우울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심각한 좌절에 빠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데다가 육체적 심리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을 수 없다. 비상적인 심리에 대한 심한 표현은 남편은 무슨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자다가 일어나 책상머리에서 묵묵히 앉아 울기도 하고 우울하게 지냈다. 이상화 사회적 현실 간의 갈등에 깊이 빠진 남편은 하루 종일 할 것 없이 잡생각만 하고 하루를 보람없이 지냈다. 남편은 자신의 꿈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인 지식은 결국 무용지물로 되어 버리고 속상함과 실망을 남겨 있다. 남편은 자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지 못해 큰 아픔과 좌절을 당하고 있는 점에서 <빈처>의 남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출세하려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빈처>의 남편과 달리 <술 권하는 사회>의 남편은 포기하고 늘 술에 빠지게 되는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갈등과 좌절은 남편을 술에 빠지게 하며 남편이 늘 술을 마시는 이유를 아내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그 좌절과 절망은 더 크게 확대되어 버렸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조금이라고 위로를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내의 무지로 인하여 탄식으로 하고 기가 막혔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봉건적 사고를 지닌 무지한 아내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절망에 더 깊이 빠지게 된다.

여기 회를 하나 꾸민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놈 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되어, 단 이틀이 못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 적으니...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會)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적이 정신이 바루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모다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²⁸

3.1 운동 직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청년회 등 사회운동 단체 조직을 고발하고 있으며 일제하 사회운동은 고질적인 병폐이고 지탄받는 분파문제와 파벌싸움을 일으킨 상황이다²⁹. 남편의 말은 사회적 개혁을 하려는 젊은 지식인의 의지와 꿈을 나타냈다. 남편은 그 의지와 꿈을 펼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고 앞으로 갈 길이 막힌다. 유학 떠나고 돌아왔던 지식인은 얻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일제 억압제도로부터 구하며 민족에게 유용한 인재로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로 인하여 거대한 뜻을 실현할 수 없다. 지식인과 지식인의 뜻의 실현을 가로막았던 사회의 불화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거대한 고통을 당하는 마음을 달래려고 남편이 선택하는 것이 술이었다. 술을 마심으로써 잠시라도 잔인한 현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믿어 매일매일 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아픔을 위로하곤 하였다. 여기서 남편의 약한 모습과 도피적인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든 고비를 넘어가려고 애를 쓰겠다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극복 의지가 없어졌으며 자신이 당하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만 남아 있다. 희망이 조금이라고 없는 암울한 현실에 항복할 수 밖에

²⁸ "술 권하는 사회" - 김동인, 황순원, 『한국단편소설 1920-1960』, 혜문서관, 2009, 118 쪽

²⁹ 임규찬, 『한국근대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태학사, 1998, 239 쪽

없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은 비참하고 한심하다.

결말에 남편은 문득 기막힌 듯이 소리를 치고 대문 밖으로 뛰어가 버리고 말았다. 대문 밖의 공간은 어두운 사회적 현실 밖을 상징하며 남편은 그 곳으로 뛰어가 버리는 행동은 자신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화시키고 자신이 답답하게 살고 있는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망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지식인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당대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2.3. 타락한 지식인

2.3.1. 꿈이 깨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뇌

<타락자> 작품은 <개벽>의 19-22 호에 연재되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은 <술 권하는 사회>에 나타난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치하에서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겪어야 하였 그 외에 기녀와 달콤한 애정 관계를 맺었고 타락한 길에 빠지게 되었다.

현진건의 <타락자> 중편소설은 작가가 실제 체험을 반영하여 창작하는 것이다. 현진건이 동경 유학 중 당숙 보운 씨가 별세하자 폐학하고 돌아왔으며 종조모와 당숙모를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진건은 대구에서 친구들과 같이 다방골 기생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춘심'이라는 기생의 유혹을 받아 사랑에 빠졌고 병까지 옮겼지만 춘심은 딴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빙허의 생활을 작품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현진건의 인생과 신분은 작품 속의 '나'의 인생과 신분과 너무나 일치한 것을 감안하면 '타락자' 작품은 그의 자전적 소설이라 과언은 아니다.

소설의 주인공 ‘나’는 원래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일본에 유학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모범적인 학생이자 화려한 꿈을 꾸며 미래가 밝은 유망한 청년이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경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는데 좌절과 타락의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되는 대로 되어라! 위인이 다 무엇이랴!'

밤새도록 잠 한숨 아니 자고 머릿속에서 온갖 신기루(蜃氣樓)를

쌓아올리다가 그것이 싸늘한 현실에 무참

히 깨어질 때 이런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부할 동안 끊었던 담배도 어느 결엔지 잊게 되었다. 때때로 '화난다!

화난다!'하고는 술을 찾기도 하였다.

술은 본래 못 먹음은 아니니, 어릴 적부터 맛도 모르면서 부친의 잡수실

술을 도둑해서 한 모금, 두 모금 홀

짝홀짝 마시었다.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절금(切禁)하였으니 정말 공부에

심신을 바친 나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담배와 술을 먹게 된 때는 집에 나온 지 한 일 년이나

되었으리라.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갑자기 무산된 것이다. 위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되는 대로 살려고 하였다. 더구나 식민지 정치상황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포부와 꿈이 크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현하기 힘든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제도라고 하는 기존적인 사회질서의 규범이 좌절감을 느끼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갈등과 고뇌가 점점 심해지고 현실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고 술에 빠지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안을 주고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그 잔인한 현실은 착하고 성실한 지식인을 황폐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피치 못하는 일이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는 만약 가정과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 공부를 마쳤다고 해도 식민지 체제에 담합하지 않으면 그의 포부와 꿈은 아직 깨질 수 있다고 본다.

술을 먹는대도 요리점에서 버금적하게 먹을 처지가 아니라(그런 처지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그까지는 아직 타락되지 않았었다.) 십 전어치나 이십 전어치나 받아다가 집에서 자작(自酌)할 뿐이었다. 거배소수 수편수란 격으로 주기는 도리어 횡증을 돕는다. 화 풀 곳은 없다. 어찌 되든 집을 획 나오는 수밖에 없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발 돌릴 곳이 없다. 서울서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또 교제를 싫어하는 나이로 어느 친구 하나 없다. 있대도 나의 화풀이 받을 벗은 아니다. 지향 없이 종로 네거리를 헤맬 따름이다. 남산공원 이나 올라가서 저도 모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한껏 흥분하여 혼자 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위의 인용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비참한 상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신을 마비하는 술과 담배에 빠지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담배와 술은 감당하지 못했던 정신적인 고뇌와 울분으로 인하여 아픈 마음을 달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정신적인 위로로서의 꿈과 기대처를 찾으면 찾을수록 방황하고 막막하면서 암담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여 그 도피처는 여자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공부와 술,

아내에게서 얻지 못하는 동감과 마음의 위안을 여자에게서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비극과 타락한 길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른다. 여자에 눈이 어두워지는 '나'는 날이 갈수록 정신적인 행복과 개인 욕망의 만족을 찾으려 갈 줄만 알았던 것 같다.

2.3.2. 타락에 깊이 빠진 지식인과 인생의 비극

화류계를 잘 아는 C와 함께 신입사원 환영회 때문에 명월관에 가게 되었다. 평소 기생에 관심이 많던 '나'는 이런 기생집에 처음 아니지만 어쩐지 어색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정신적인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 같다.

여염집 여자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어여쁜 표정, 웃이 몸에 들어붙은 듯이 아름다운 맴시, 교묘한 언사(言辭), 유혹적인 웃음이 과연 그럴 듯하였다. 묵묵히 보고만 있는 나에게도 위안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 같았다.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풀리는 듯싶었다. 싸늘하던 심장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듯싶었다.

'이럴 때에 기생이나 아는 것이 있었으면.....'

화류계에 유혹된 '나'는 C가 거기에 놀러 가자고 하였을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따라가서 정신적인 쾌락을 얻었다. 어느 날 '나'는 C와 함께 명월간에 가게 되어 거기에서 춘심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되고 춘심의 미색에 반해 그에 빠지게 되었다. 춘심이 주소를 알려주며 회식이 끝난 후 같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자 '나'를 좋아한다고 느낀 '나'는 기분이 좋고 만취되었고 주정되었다. '나'는 춘심을 만나면 만날수록 춘심과의 연정이 깊어진다.

아내는 '나'의 이런 행동을 처음으로 몇 번은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이 더더욱 춘심에게로 쏠리자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내까지 한 번 가서 정을 풀어버리라고 하였지만 춘심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까지 하였다. 사랑에 눈이 먼 '나'는 아내의 감정과 마음을 무시하고 날이 갈수록 여색에 빠지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바로 어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것을 보아요, 이것을!"

아내가 방에 들어서기 전에 무슨 경급한 일을 말하는 사람모양으로 소리는 험뻑거렸다.

"춘심이 나에게 편지를 했구려, 편지를!"

하고 온 얼굴이 웃음에 무너졌다.

그날 해지기가 바쁘게 나는 정서준 이를 찾아 나섰다. 나는 무념무상으로 거의 달음박질하 듯 걸음을 재게 하였다. 발이 공중으로 날며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 집 골목에 확 들어서자, 갑자기 걸음이 누구러지며 가슴이 방망이질하였다. '예까지 와 가지고'하고 하마터면 뒤로 돌 발자국을 앞으로 콧 대디디었다. 중문턱을 넘으며 머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이 횡하였다.

며칠 동안 '나'는 춘심을 보지 않아서 견디지 못할 만큼 춘심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춘심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을 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길길이 뛰고 날고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춘심이 편지를 보내준 것을 말하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까지 자랑하고 빠른 걸음으로 춘심에게 걸어갔다.

아내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구여성으로 남편을 항상 응원하고 믿어준 든직한 내조자이다. 실망에 빠진 남편이 기분전환을 위해 기생집에 다니고 술

먹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저녁을 일찍 준비하고 남편을 춘심에게 내보냈다. '나'는 이런 현숙한 아내를 무시하고 춘심에 대한 생각만 나고 개인적인 욕망과 행복을 추구할 줄만 알았다. 근대를 향한 지식인인 '나'는 아내를 자신이 원하던 혼인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진행된 혼인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탓에 항상 마땅하지 않은 태도로 대접한다. 춘심은 완전한 신여성이 아니지만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봉건적인 아내에 비하여 자연적인 연애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나'의 비극적인 인생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며 답답한 사회, 운명에 얻은 모든 실망, 절망, 분노를 아내로 넘어간다. 아내를 보면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유학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느껴지고 영혼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 자신을 포기하였다고 느껴지면서 타락한 길에 빠지게 된 기체가 된다. '나'와 기생 춘심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지식인이 추구하는 자유연애가 아니라 그의 속박된 삶의 위로이다. '나'는 근대를 추구하는 지식이지만 "사회와 화합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적 인물이 되거나 낙오된 인물"³⁰로 되고 기생 춘심의 사랑에 빠짐으로써 '나'의 실패를 잠깐이라도 잊어 버릴 수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춘심에 대한 욕망은 시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대체하고 자신의 불만을 달래고 만족하게 하는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춘심은 단순한 연애대상이 아니고 '나'를 위안해 주고 암담한 현실을 탈출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춘심에게서 얻은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나'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나'는 가혹한 현실을 대처하지 못해 타락의 길로 빠진 나약한 지식인에

³⁰ 현길언,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 2000, 57 쪽.

불과하였다.

춘심과 몇 번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던 '나'는 부득이한 이유로 만나게 되었지만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을 끊기 위해서 반드시 가 보아야'한다는 생각으로 만난 것이다. '나'는 춘심이 기생이고 다른 기생과 같이 금전에 욕망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춘심에게 20 원을 주고 관계를 끊자 하려고 하지만 춘심은 싫다고 하여 몰래 옷 속에 넣어 주었다. '나'는 다시 춘심의 고백에 흔들린다. 춘심은 겉보기에 기생으로 변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롭고 진정한 사람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로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이런 춘심을 만난 후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춘심을 통하여 반영되었던 것 같다고 느꼈다.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점에서 '나'는 춘심과 공감을 생기고 춘심도 '나'처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 점에서 '나'와 공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임질에 걸리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그 몹쓸 병은 옮았을 그때로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에야 증세가 드러났다. 거의 행보를 못할이 만큼 남몰래 아팠다. 춘심으로 하여 이런 고통을 겪건만 조금도 그가 께심치 않았다. 나의 머리는 아주 이지적이었다. 그야 무슨 죄이라. 짐승같은 남자 하나이 그의 정조를 유린하고 그의 육체를 다독(荼毒)하였다. 저도 모를 사이에 그 독균은 또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갔다. 저주할 것은 이 사회이고, 한 할 것은 내 자신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에 가기는 싫었다.

'나'는 결국적으로 춘심에게서 임질을 걸렸으며 육체와 정신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심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춘심으로 병을

웁긴 짐승같은 남자를 저주하고 욕하였다. 이런 곤경에 빠진 '나'는 아직 춘심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공감만 아직 느낀 '나'는 어리석고 무식한 지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짓이야. 무슨 고약한 짓이야. 천하 못 된 것 같으니....."

그는 나를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같이 성을 내며, "무엇이요? 그까짓 년의 사진 좀 뜯으면 어때요? 야단칠 일도 펍도 없는가 보다."

그가 이렇게 들이대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분노는 비등하였다. 나는 성을 어찌 할 줄 몰라 침을 부글부글 흘리며 더듬거렸다.

"무엇이 어째고 어째? 뜯으면 어떠냐?"

"어때요? 그런 개 같은 년....."

저편도 씨근거렸다. 푸르죽죽해진 입술이 바르르 떨고 있다.

허파가 벌컥 뒤집히는 듯하였다. 숨이 각 막힘을 느끼자, 문득 때 아닌 눈물이 핑그르 눈초리에 넘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까닭이다. 이날 이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계집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한 까닭이다.

아아, 나는 어찌 할까?

춘심이 짐승지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아내가 사진을 찢었을 때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그전에 밤에 춘심과 지낸 남편을 양보해 주다가 성병까지 걸렸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여 사진을 찢은 아내의 행동을 독자로서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아내와의 동정심과 후회가 보이지 않고 아직 춘심을 향한 마음만 있었고 춘심의 편에 섰으며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냈다. 타락한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느때보다 잘 표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와

춘심의 사랑은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와 춘심의 사랑은 처음에 생각했던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풍자의 사랑이었다.

작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소설화된 작품인 '타락자'는 주인공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사랑과 성적적인 충동을 대담한 묘사로 드러내고 있다. 비록 현진건은 실제로 대구에서 기생 춘심과 가깝게 사귀었다고 하지만 작품에서처럼 성병에 걸릴 정도로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³¹ '타락자'는 주인공이 춘심에게 느끼는 사랑과 방황, 고민을 통하여 식민지 시대에 현실의 압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타락한 길에 빠지는 황폐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락자>에서 나타난 지식인의 좌절과 타락은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직후의 암울한 사회 상황과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지식인으로서의 작자의 고뇌의 모습을 작품화하였고 식민지 사회가 안고 있는 한계와 제약에 대한 지적을 나타낸 점에서 강한 민족의식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³¹金英姬 Jin Ying Ji, 현진건의 자전적 신변소설 연구 - <타락자>를 중심으로, 제 1 회 국제 전문가 학술회의, 2008

제 3 장: 현진건의 지식인과 남까오의 지식인 비교

3.1. 남까오 작품에 등장한 지식인

남까오는 베트남 문학 상에 제일 대표적인 사실주의작가 중의 하나로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주의작가 중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베트남 근대문학 완성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³² 20 세기 초에 태어난 베트남 문학 사실주의는 남까오의 작품들을 통하여 진정한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까오의 작품들은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과 지식인의 정신적인 비극을 주요적인 주제로 창작되었다. 한국 문학단의 현진건 작가와 마찬가지로 남까오는 식민지하에서의 지식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작품에 지식인 인상을 구체화하였는데 지식인에 대한 대표적인 남까오의 작품은 <Đời thừa 여분의 인생>과 <Trăng sáng 밝은 달> 두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식민지하에 지식인의 궁핍한 생활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의 '정신적인 비극 Bi kịch tinh thần'의 문제를 사실주의와 인도적인 시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문필가의 비극과 애정의 비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3.1.1. 문필가의 비극

<여분의 인생 Đời thừa>의 호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로 항상 큰 작품을 쓰고 싶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에 유익적인 삶을 살고 싶다. 호에게 문학은 취미뿐만 아니라 평생 품어 왔던 큰 뜻이자 이상, 삶의 의욕이며 호는 문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³² Phan Cự Đệ, Trần Đình Hựu, Nguyễn Trác, Nguyễn Hoàng Khung, Lê Chí Dũng, Hà Văn Đức, 'Văn học Việt Nam 1900-1945', (베트남 문학 1900-1945),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교육출판부), 2000, 343 쪽.

굽주림은 이상에 몰두한 젊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의 마음은 아름답다. 그 머리속은 큰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물질적인 걱정을 경시한다. 그의 재능이 나날이 피어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읽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평가한다. 그에게 예술은 전부이고 예술 밖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도 없다.³³

<여분의 인생>

가치 있는 작품은 모든 국경과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온 인류의 작품이다. 그 작품은 경력하고 대단하고 아프면서 흥분되는 것을 담아야 한다. 그 작품은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³⁴

<여분의 인생>

평생 나는 오직 한 권의 책을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은 노벨의 상을 받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³⁵

<여분의 인생>

호는 허명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다. 호는 재능이 있고 문학예술에 대한 욕심과 열정을 갖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핍한 생활은 호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문필가의 비극을 시작하였다.

호는 예술적 문학에 깊게 바친 사람이지만 살림을 꾸려 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쓰고 싶지 않는 것과 가치 없는 작품을 써야 하였다. 호는 자신의

³³ Đói rét không có nghĩa lý gì đối với gã trẻ tuổi say mê lý tưởng. Lòng hán đẹp. Đầu hán mang một hoài bão lớn. Hán khinh những lo lắng tụn mồn về vật chất. Hán chỉ lo vun trồng cho cái tài của hán ngày một thêm nảy nở. Hán đọc, ngâm nghĩ, tìm tòi, nhận xét và suy tưởng không biết chán. Đối với hán lúc ấy, nghệ thuật là tất cả; ngoài nghệ thuật không còn gì đáng quan tâm nữa.

³⁴ Một tác phẩm thật giá trị, phải vượt lên bên trên tất cả các bờ cõi và giới hạn, phải là một tác phẩm chung cho cả loài người. Nó phải chứa đựng được một cái gì lớn lao, mạnh mẽ, vừa đau đớn, lại vừa phấn khởi. Nó ca tụng lòng thương, tình bác ái, sự công bình... Nó làm cho người gần người hơn.

³⁵ Cả một đời tôi, tôi sẽ chỉ viết một quyển thôi, nhưng quyển ấy sẽ ăn giải Nô-ben và dịch ra đủ mọi thứ tiếng trên toàn cầu!

작품을 신문에 봤을 때마다 눈썹을 찡그리고 이를 갈고 종이를 구겼을 정도로 자기자신에게 화가 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호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은 호는 물질에 대한 하찮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고 매일 어려운 생활을 투쟁하여야 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걸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호는 자신을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여분의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낀다.

<밝은 달>은 <여분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궁핍한 생활을 겨우 살아가는 지식인을 서술하는 남까오의 작품이다. <밝은 달>의 디엔은 남까오의 인생의 모습을 반영하는 인물이다. 디엔은 가족을 부양하기는 커녕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월급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가난한 교사이다. 디엔은 <여분의 인생>의 호처럼 문인으로서의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을 당하여야 한다. 남까오의 작품들에 나온 지식인들은 농민처럼 궁지에 몰려 죽을 정도가 아니지만 궁핍한 생활로 인하여 예술적인 이상과 뜻을 이루지 못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간다.

가족은 네 명이였다. 네 명은 침대 하나를 같이 썼다. 추운 날에 좁아서 따뜻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더운 날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³⁶

<밝은 달>

남까오는 디엔의 가난한 생활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가족 네 명은 침대 하나 쓸 정도로 얼마나 고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가족 형편을 불구하고 디엔은 대단한 관직이 되고 싶지 않고 부유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문학을 선택하였다. 그에게 예술은 돈을 버는

³⁶ Cả nhà đúng bốn người, bốn người chắt cả vào một cái giường! Giá mùa rét thì cũng được, chen chúc nhau một tý càng ấm áp. Nhưng mùa nực, còn gì là vệ sinh?

도구가 아니라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이상이자 행복이다.

만약 작품을 써서 5 동을 벌 수 있다면 100 동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망설임 없이 거절하겠다.³⁷

<밝은 달>

예술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디엔은 궁핍한 생활로 인하여 예술에 대한 열정에 맞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다른 작가처럼 디엔도 창작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아이가 우는 소리, 아내의 잔소리, 닭을 빼앗긴 이웃사람이 욕하는 소리 안에 디엔은 창작하고 있었다. 그 잔인한 현실은 예술에 대한 디엔의 꿈과 갈망을 죽인 것이다.

디엔은 낭만적인 작가이기도 한다. 그는 달을 사랑한다. 밤에 집 앞에 앉아 있는 디엔은 밝은 달을 봤을 때 머리 속에 시상이 저절로 떠오르고 생활의 모든 고뇌와 힘들음을 잠깐 잊어버리고 마음이 아주 편한 것 같다. 그런데 시상에 빠지다가 초라한 집과 고생한 아내와 아이를 보고 나서 슬프고 참담하다고 느낀다. 원하지 않아도 가혹한 현실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 디엔은 예술에 대한 이념을 깨닫게 되었다. 예술에 대한 디엔의 관점과 호의 관점은 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분의 인생>에 호는 애정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인도적인 예술을 강조한다면 <밝은 달>에 디엔은 낭만적인 예술을 완전히 벗어나고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을 도모하고 싶었다. 디엔과 호는 아무리 생활적인 고통과 비극을 당하더라도 인생과 예술에 대한 관념에 대한 충성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분의 인생>과

³⁷ Điền sẵn lòng từ chối một chỗ làm kiếm mỗi tháng hàng trăm bạc, nếu có thể kiếm được năm đồng bạc về nghề văn.

<밝은 달> 작품은 남까오의 '예술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예술은 반사되는 달빛처럼 아름다울 필요가 없고 아름다운 달빛이 되면 안 된다. 예술은 단지 고통스러운 소리 뿐이며 비참한 인생에서 나온 것이며 디엔 마음 속에서 강력히 울리는 것이다.³⁹

<밝은 달>

3.1.2. 애정의 비극

<여분의 인생>의 호는 문필가의 비극에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비극에 빠지게 되었다. 애정을 삶의 최고 원칙과 도리로 보고 있는데 결국 자신이 세웠던 원칙을 위반한 사람의 비극이었다. 전자의 경우 호는 애정의 원칙을 지키려고 문학의 이상을 희생하였다고 자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아무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래서 후자의 비극은 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이 비극은 문필가의 비극보다 더 아프게 느낄 수 있었다.

애정이 넘치는 호는 불쌍한 뜨 Tù의 인생을 살리고 뜨를 아내로 맞았다. 가치 있는 작품을 쓰는 것이 평생의 최종 목적인 호는 궁핍한 생활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애정을 버려야 문학을 열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애정과 명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호는 결국 아내와 아이를 떠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문학의 꿈을 희생하였다. 꿈이 깨진 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내와 아이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모든 행동은 애정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호는 강하게 살아 가기 위해 악독하고

³⁸ Trần Đình Sử,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교육출판사), 'Ngữ văn 11 nâng cao- Tập một, (고등 2 학년 문학-1 부), 2008, 211 쪽.

³⁹ Nghệ thuật không cần là ánh trăng lừa dối, không nên là ánh trăng lừa dối, nghệ thuật có thể chỉ là tiếng đau khổ kia, thoát ra từ những kiếp lầm than, vang dội lên mạnh mẽ trong lòng Điền.

잔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한 철학자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다.⁴⁰

뜨가 아주 사랑스럽고 불쌍해서 사랑, 그 이기적인 사랑을 희생할 수 있는데 애정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 그는 유약하고 나약한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이었다. 자손심으로 조종을 받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⁴¹

<여분의 인생>

호는 애정의 대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힘이 센 사람이란 이기적이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깨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⁴²

<여분의 인생>

문학에 대한 갈망을 희생하는 것은 호에게 인생의 이상과 이유를 희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호의 마음 속에 아픔이 심해지고 오래가고 호는 나날이 그 아픔을 남몰래 참아야 하였다. 고통스러운 그는 술을 찾게 되었는데 술은 마음의 고통을 덜기는 커녕 오히려 그 아픔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호는 자기를 욕하면서 울어버렸다. 취중에 호는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아픔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모든 울분을 그들에게 터뜨렸다. 호는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고 불쌍한 아내를 때리고 힘들게 하였다.

술 깬 다음에 호는 아내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생각이 나서 너무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였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는 고뇌의 모습을 보고 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결말은 문학 위에 인생을 예술 위에 애정을

⁴⁰ Phải biết ác, biết tàn nhẫn để sống cho mạnh mẽ.

⁴¹ Từ rất đáng yêu, rất đáng thương, hẳn có thể hy sinh tình yêu, thứ tình yêu vị kỷ đi; nhưng hẳn không thể bỏ lòng thương; có lẽ hẳn nhu nhược, hèn nhất, tâm thương, nhưng hẳn vẫn còn được là người: hẳn là người chứ không phải là một thứ quái vật bị sai khiến bởi lòng tự ái.

⁴² Kẻ mạnh không phải là kẻ giẫm lên vai kẻ khác để thỏa mãn lòng ích kỷ. Kẻ mạnh chính là kẻ giúp đỡ kẻ khác trên đôi vai mình.

두었던 남까오의 예술 관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는 뜨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했는가? 그의 눈물이 레몬을 강하게 짜는 듯이 솟아났다. 그리고 울었다...웬걸! 그는 울었다! 그는 흐느껴 울었다, 소리 나지 않게 울었다. 뜨의 작은 손을 자신의 가슴에 꼭 잡고 울었다.⁴³

<여분의 인생>

3.2. 현진건의 지식인과 남까오의 지식인의 비교

3.2.1. 공통점

현진건(1900-1943)과 남까오(1917-1951)는 한국 및 베트남의 근대 시대에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두 작가는 식민지 치하에서 암담한 현실을 당하는 궁핍한 농민과 고통스러운 지식인의 삶을 사실대로 문학작품에 드러내었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현진건과 남까오는 사람을 고생하게 했던 식민지 제도를 비판하고 사람의 비참한 처지에 공감을 표시한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 사는 지식인은 현진건과 남까오의 주요적인 창작 대상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여러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현진건의 소설 및 남까오의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점은 소자산 계급이며 지식인이나 문인, 교사 직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학습을 많이 한 사람으로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아름다운 꿈을 꾸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식민지 제도와 어두운 삶의 현실에 항상 투쟁하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⁴³ Hấn đã làm gì để cho Từ khỏi khổ? Nước mắt hấn bật ra như nước một quả chanh mà người ta bóp mạnh. Và hấn khóc... Ôi chao! Hấn khóc! Hấn khóc nức nở, khóc như thể không ra tiếng khóc. Hấn ôm chặt lấy cái bàn tay bé nhỏ của Từ vào ngực mình mà khóc.

열심히 살더라도 비참한 최후까지 사람에게 탄압을 가하는 사회 때문에 가난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자신의 꿈과 갈망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지식인들은 좌절하게 되고 어두운 새활 속에 더 깊게 빠지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진건과 남까오 두 작가는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에 나타난 일본 식민지 하의 한국 지식인 모습과 <여분의 인생>, <밝은 달>에 나타난 프랑스 식민지하의 베트남 지식인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설정하였다.

현진건과 남까오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은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무능력에 오는 자책과 고뇌를 당하였다. <빈처>의 ‘나’는 월급 푼이나 받고 살기보다 참된 예술을 위해 살기로 하고 독서와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 때문에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은 옷가지까지 전당표에 팔 정도로 살림을 궁핍한다. <밝은 달>의 디엔은 가족을 부양하기는 커녕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 가난한 교사이다.

현진건과 남까오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들은 농민처럼 궁지에 몰려서 자살하거나 죽을 정도가 아니지만 나날이 가족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도 문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다. 물질적인 문제와 걱정은 지식인이 품어 왔던 아름다운 포부와 꿈, 이상을 죽였는데 이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빈처>의 ‘나’ 및 <여분의 인생>의 호는 물질적인 걱정이나 고민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생하게 살아야 하며 모든 꿈과 이상을 포기하여야 하였다. 살아가기 위하여 쓰고 싶지 않는 것을 써야 하거나 쓸데없는 독서와 창작에 몰두하여 하였던 그들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술 권하는 사회>에서도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권해서 먹는다는 주인공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다. 결말에 남편은

아내가 없는 바깥으로 떠나 버리는 것은 봉건적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세계를 찾아가려는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다.

<빈처>와 <여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작품의 결말은 약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분의 인생>에 호는 뜨의 가슴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과 <빈처>에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낭만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애정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다운 가족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진건과 남까오의 지식인 인물은 답답한 삶에 싫증이 나고 좌절하였을 때 술을 찾았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타락자>의 '나'와 <술권하는 사회>의 남편, <여분의 인생>의 호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는 기구로 술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술을 찾는 것은 어두운 현실을 도피하고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욕구에 오는 행동이다.

또는 현진건과 남까오의 작품의 지식인의 아내는 아주 착하고 남편의 정신적인 원조자이다. 유학간 남편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남편의 밝은 미래와 성공을 희망하고 바란다. 가난한 삶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았다. 집안을 장만하고 살림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아내는 남편의 물질적인 정신적인 원조자이자 남편이 꿈을 이루는 길에 동반자이다.

그리고 남까오와 현진건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을 성공하게 묘사하는 것에 기여하는 요소를 말하면 인물의 심리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작가는 지식인의 궁핍과 고뇌 속에 인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는 당시 지식인의 정신적인 비극을 이해하고 깊은 동감을 하였다.

3.2.2. 차이점

같은 시점에 살고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현진건과 남까오 두 작가의 지식인의 인물이 여러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식인 인물은 서로 다른 문학적 성격 가진 두 작가로부터 작성되어서 차이점도 갖고 있다.

<여분의 인생>과 <밝은 달>에 나타난 지식인 인물을 통하여 남까오는 인생적인 생각을 표시하고 인도적인 주의를 강조하였다. 디엔과 호는 이상과 성격을 완벽하게 설정된 인물이다. 그들은 양심과 자기 갈망, 예술과 애정 간에 선택하고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두었다. 호는 ‘힘이 센 사람이란 이기적이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깨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⁴⁴ 라고 생각했고 디엔은 ‘가난은 사람의 좋은 품격을 상당히 값아먹는다’⁴⁵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인 욕구와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존중하는 좋은 인생의 원칙을 어기고 자기 인식을 잃는 것은 아주 비참한 정신적인 비극이다. 이런 내심적인 투쟁은 피가 흐르지 않고 신체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눈물을 흐르게 만들었다. 아무리 정신적인 비극을 심하게 당하더라도 남까오의 지식인 인물은 ‘자아 의식’⁴⁶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남까오의 지식인 인물은 좌절된 것을 투쟁하고 정신적인 비극과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의지를 내면 속에 보여 주었다. 이것은 남까오와 현진건 간의 차이점이다.

<여분의 인생>의 호에 대하여 애정에 관한 관념과 생각은 인상적이고 호의 인격을 함양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호 같은 좋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자기의

⁴⁴ Kẻ mạnh không phải là kẻ giẫm lên vai kẻ khác để thỏa mãn lòng ích kỷ. Kẻ mạnh chính là kẻ giúp đỡ kẻ khác trên đôi vai mình.

⁴⁵ Những tính tình tươi đẹp của người ta mà ‘cái khổ làm héo đi phần lớn’

⁴⁶ Ý thức cá nhân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떠나고 싶었다. 어떤 때는 자기 를 위해서 한 번 살아 볼까 고민하였다. 그때마다 호는 자기를 욕한 적이 많았다. 결국 예술적인 이상을 포기하여야 하더라도 아내와 아이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애정을 버릴 수 없는 호는 가난과 정신적 아픔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힘이 센 사람이란 이기적이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깨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라는 호의 생각은 되게 인상적이었다. 여기서 남까오는 인물의 이런 심리를 자세히 보여 줌으로써 인도적인 정신을 표현하였다. 이런 인물의 심리는 현진건의 작품에 나타난 지식인에 비해서 더 진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까오와 현진건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은 차이점도 볼 수 있다. 같은 지식인의 정신적인 고뇌 속에 생각을 묘사하였는데 남까오는 <여분의 인생>의 호와 <밝은 달>의 디엔에게 내심 독백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현진건의 인물은 내심 독백이 많이 없었다. 호와 뜨의 심리를 묘사하였을 때 남까오는 대화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많은 내심 독백을 통해 인물의 깊은 생각을 보여 주었다. 남까오는 베트남 현대문학에 인물의 내심 독백을 활용하는 데 훌륭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 III 부: 결론

본 논문은 현진건의 지식인상에 중점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현진건의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하 지식인 이미지 또는 당시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인 남 까오 Nam Cao 의 지식인 인물과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에서 현진건이 지식인에 대한 작품들을 창작한 1920 년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지식인이 어떻게 묘사되었고 제시되었는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 그 다음 현진건 작가의 생애 및 문학 세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여 이를 통해 현진건의 생애 및 문학의식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장에서는 지식인에 대한 현진건의 대표적인 작품 3 편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인의 특징을 3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에 등장하는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 인물은 자부심을 가지며 신지식을 얻은 뒤 진보적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실패로 끝났다. 지식인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현진건은 자기자신에 대한 연민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현진건의 단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식인 인물은 1920 년대의 현실 속에

살았던 인물로 작가의 치밀한 관찰과 묘사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현실로 인해 갈등을 겪는 민족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는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구조적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그 사회의 주체자로 된 지식인들은 그 모순 때문에 기존의 체제와 가족 혹은 자기 자신과 필연적인 갈등을 겪는다.

3 장에서 위에 분석한 현진건의 지식인상과 남까오의 지식인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인 <여분의 인생>, <밝은 달>에 등장한 지식인상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다. 현진건과 남까오는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두 작가는 한국과 베트남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궁핍한 생활과 정신적인 고뇌, 비극을 상세히 묘사하였기 때문에 작품 속의 주인공의 상황 및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다.

1920년대 식민지 제도를 당하고 있었던 한국과 베트남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문학에도 양국의 작가들은 식민지 제도에 억압을 받은 농민계층과 지식인 계층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시대적인 문제를 문학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하였다.

현진건의 작품을 통하여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간, 사회 측면에도 한국과 베트남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1. 한국어

- 김동인, 황순원, 『한국 단편 소설 1920-1960』, 도서 출판 혜문서관, 2006
- 김석규, 『3.1 운동에 대한 평가』, 한국근대사회와 사상, 중원문화, 1984
- 계용목, 『한국 대표 단편문 학선』, 번양사, 1997
- 김우중, 『“빈처”의 분석적 연구』 (현진건 연구),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 당람장, 『베트남과 한국의 사실주의 문학 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 전공, 2009
- 르영 응웬 타이짱, 『남까오(Nam Cao)와 현진건 사실주의 단편소설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2007
- 박혜리, 『현진건 단편 소설의 남성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8
- 임규찬, 『한국근대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태학사, 1998
- 응웬티튀짱, 『현진건 단편 소설의 지식인상 연구- 남까오 Nam Cao 작품의 지식인상과 비교하여』,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졸업논문, 2015
- 지식을 만드는 지식, 『고전해설』, 지만지, 2009
- 정승미, 『1930년대 지식인 소설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동일, 『한국문학강의』, 도서출판 길벗, 1994
- 포문전첨,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단편 소설 비교 연구- 현진건과 루쉰 소설의 지식인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현길언,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 2000

포문전첨,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단편소설 비교연구- 현진건과 루쉰 소설의 지식인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金英姬 Jin Ying Ji, 『현진건의 자전적 신변소설 연구 - <타락자>를 중심으로』, 제 1 회 국제 전문가 학술회의, 2008

2. 베트남어

Kang Ha Na, 『Những điểm gặp gỡ giữ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Hàn Quốc Huynh Jin Geon và ba nhà truyện ngắn hiện thực Việt Nam: Nguyễn Công Hoan, Nguyễn Hồng, Nam Cao』, Luận văn thạc sĩ, Đại học sư phạm Hà Nội, 2000.

Trần Đình Sử,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교육출판사), 『Ngữ văn 11 nâng cao- Tập một』 (고등 2 학년 문학-1 부), 2008

Phan Cự Đệ, Trần Đình Hựu, Nguyễn Trác, Nguyễn Hoàn Khung, Lê Chí Dũng, Hà Văn Đức, 『Văn học Việt Nam 1900-1945』 (베트남 문학 1900-1945),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 (교육출판부), 2000

<부록>

한국어로 요약된 <여분의 인생>

호는 재능이 있는 젊은 작가로 유명한 작품을 쓰는 꿈을 가지고 있다. 뜨는 배신 당하고 임신하였고 맹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자이다. 호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뜨를 결혼하고 뜨의 아이를 받아들여준다. 그때야 호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찮고 무의미한 걱정에 빠지게 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 작품을 대충 써야 했고 자기 쓴 작품을 봤을 때마다 창비하고 자기를 욕하였다. 호는 아내와 아이를 아주 사랑한다. 뜨가 아팠을 때 호는 밤새도록 돌봐 준다. 며칠 집에 떠나다 돌아왔을 때 아이를 뽀뽀하고 눈물이 날정도로 감동하였다. 그는 책을 읽는 데 몰두하였고 좋은 문장을 봤을 때 아무것도 비할 바 없을 만큼 좋아하였다.

아무리 글을 써도 돈이 모자르고 먹을 것이 없다. 돈 버느라 힘든 호는 성깔을 자주 부리게 되었다. 호는 술을 마셨고 성격이 변하였다. 술을 마시면 뜨를 학대하고 뜨와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다. 다음 달은 술을 깬을 때 뜨에게 사과하고 좋은 아빠처럼 아이를 뽀뽀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

월금을 받은 날에 아이에게 과자와 고기를 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길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에서 친구가 자기 쓴 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출판하여 유명한 작가가 될 것을 들었다. 호는 밤새 술을 마시고 돈을 다 썼다. 집에 돌아왔을 때 뜨를 때렸고 집에서 또 쫓아냈다. 아침에 술을 깬을 때 호는 어제 밤의 일에 대한 생각이 들어 당황한다. 뜨는 아이를 안고 그물 침대에 자고 있었다. 호는 뜨의 고생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아주 후회하였고 울음을 타뜨렸다. 뜨는 일어나서 호를

안아주었다.

<남까오- Nam Cao>

한국어로 요약된 <밝은 달>

디엔은 가난한 작가이다. 그런데 가난해서 작품을 쓰지 못하고 사립학교에서 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하였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지 3년이 됐을 때 학교 문을 닫게 되었다. 학교의 교장은 마지막 월급 대신 대나무 의자 4개를 디엔에게 주었다. 디엔은 어쩔 수 없이 의자를 벨로 실어왔다. 디엔의 아내는 그 의자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디엔에게 집에서 쓰지 말고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자고 했다.

디엔은 달을 아주 사랑하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 디엔은 의자를 마당으로 가져가서 앉으면서 아내와 아이와 같이 달을 구경하곤 하였다. 그때 디엔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디엔의 아내는 달의 빛 아래 돈만 생각하고 아이를 욕하고 때리는 엄마가 아니었다. 아내는 원래 부잣집의 딸인데 디엔과 결혼한 때부터 생활이 궁핍해지고 돈만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 대신에 살림을 꾸리고 고생하였다. 아내를 도와 줄 수 없는 디엔은 아내를 보고 아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디엔은 대단한 소설을 쓰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가난한 생활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디엔은 보름달을 보면서 피부가 하얀 미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미인들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는 가치 있는 작품을 쓰고 유명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여유롭고 한가한 가운데 마음대로 작품을 쓰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런데 집에서 나온 아내의 욕소리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상상하던 모든 모습이 사라졌다. 디엔은 현실을 인식하기 하였다. 달에 비친 환상적인 꿈같은 것을 쓰지 말고 현실을 보여주는 배고프고 고생한 아내와 아이에 대해 쓰는 것이

좋다고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디엔은 아이가 우는 소리, , 아내의 잔소리, 도난 당한 닭이 있는 이웃사람이 욕하는 소리 안에 디엔은 창작하고 있었다.

<남까오- Nam Cao>